

# 아가미

2024

SCREENPLAY BY  
CHOI HYEJIN

1 EXT. 산중턱 - 낮

해가 짙고 녹음이 짙은 산. 앞서가는 진우(46, 남)와 카메라로 주변을 찍으며 뒤따라 올라가는 수진(45, 여).

진우

몇 년 전에 공연 때문에 한국 왔는데 매니저가 한국인이라 매니저 추천으로 와봤대요.

공연 끝내고 일주일 정도 관광 하다가 마지막 날에 여기 여기 산꼭대기에서 노을 지는 거 보고 한국이 되게 좋은 이미지로 남았다나 그러던데. 그래서 다음 내한 때는 여기서 봤던 그 분위기를 무대에 담고 싶다고 생각했대요.

수진

그런 사연까지 있었어? 어쩐지. 유명하지도 않은 산을 그것도 외국 애들이 어떻게 알고 말하나 했네.

진우

나름 유명한 밴드가 한국을 이렇게 생각해주는 게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연출자로서는 이렇게 말해주면 진짜 할 맛 나거든요.

수진

(헉헉대며)

근데 개네가 이렇게 험난한 산을 직접 올라가서 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진우

직접 봐야 알죠. 선배님도 허락하셨잖아요.

수진

(포기한 듯한 말투로)

그래 알겠어.

Cut to:

진우

근데 나무 같은 것도 귀퉁이에 하나 세울 수 있을까요?

좀 큰 나무요.

수진

산꼭대기라며. 땅은 흙이야?

진우

돌 바닥인데 그 사이로 자란 큰 나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진

(허공에 손짓으로 표현하며)

그럼 귀퉁이에 큰 나무 제작하고 가지들 조명 앞에 이렇게 드리우게 해서 포그 좀 깔고, 빛줄기 이렇게 여러 갈래로 지게 하는 건 어때?

(사이)

무대 선 애들이 너무 안보이려나.

허공에 손짓을 하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설명하는 수진. 진우를 따라 잡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한다.

진우

따로 하나 때리면 되죠.

근데 빛줄기 보다는 하늘이 좀 땡 뚫려 있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개네가 설명하는 거 보니까 하늘이 중요한 거라서.

수진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며)

까다로워.

그럼 딱 한 그루만 한다 치고. 산꼭대기니까 포그는 열계라도 까는 게 좋을 거 같아.

진우

(멋쩍은 듯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나무는 얼마나 걸릴까요?

수진

주말 이틀이면 다 하지 뭐.

밥 먹고 이것만 하는데.

진우

(웃으며)  
진희랑 애들 고생 좀 하겠네요.

수진

그러게. 모레쯤 시안 몇 개 보내줄게.  
(열게 한숨을 쉬며)  
근데 무슨 분위기를 원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진우

그러니까 선배님한테 부탁했죠.  
저도 명확한 이미지가 안 떠올라서 좀 걱정이긴 한데..  
올라가서 보면 감이 오지 않을까요?

수진

화려하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연자연한  
건 좀 어렵다. 다들 화려하고 튀는 걸 원하지 이런 걸  
원하는 건 처음이네.  
(헉헉대며)  
근데 간단한 답사라면서 이렇게 고생할거면 미리 말이  
나 해주던가.

진우

얼마 안 남았어요.

앞서가는 진우와 힘들게 뒤따라가는 수진. 거친 오르막과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둘.

## 2-A EXT. 산꼭대기 - 노을지는 저녁

정상에 도착해 숨을 고르며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넋이 나간 수진과 진우.

진우

(감탄하며)  
어떻게 이런 동네에 이런 산이 있어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본다.

진우

(뿌듯한 표정으로)  
제가 올라오자고 했어요.  
이제 감이 좀 잡히지 않아요?

수진

(주위를 둘러보며 낮이 나간 듯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다 보이네.

진우

저기 서울도 보여요. 근데 이 동네 살았다면서요. 이 예쁜 데를 한 번도 안 올라와 보셨어요?

수진

20대에 등산 가는 애들이 뭐 흔한가. 그리고 내가 산을 탈 성격이니.

진우

(웃으며)  
그쵸.  
지금 선배님 보면 대학생 김수진이라고 등산을 했을 것 같진 않네요.  
근데 이 동네 살았으면 진짜 좋았을 거 같아요.  
바로 앞에 이런 산도 있고,  
물론 존재도 모르셨던 것 같긴 하지만.

수진

(생각에 잠긴 듯 멍한 표정으로)  
그치. 좋았지.

진우

저도 이런 데 살았으면 좀 고즈넉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쵸?  
전 서울 토박이라.  
서울 올라오고는 한 번도 안 와보셨어요?

수진

응. 별로 생각이 안 나서.  
(사이)  
나 이제 일 그만둬야겠다.

진우

네?  
(사이)  
갑자기요?

수진

(멍한 표정으로 노을을 바라보며)

그냥.

(사이)

너 것까지만 하고 그만할래.

진우

왜요? 언제부터 생각하신 건데요?

수진

방금. 그냥 문득.

진우

무슨 일 있으세요?

진우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지는 해를 응시하며 생각에 잠긴 듯한 수진.  
무표정으로 담담하게 말을 시작한다.

수진

무슨 일이 있었지.

없는 일이라고 바둑바둑 버티다가 여기까지 오니까 너

무 다.. 생각 나버리네.

진우

그냥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 실수했어요 혹시?

(당황하며)

여기까지 제가 너무 고생시켰죠.

죄송해요.

수진

이 동네에서 친구가 죽었거든.

(사이)

내가 죽인 거지.

## 2 INT. 수진의 집 - 낮 (Flash-Back)

작은 창문에 햇별이 드는 화장실. 마른 욕조 안에 나시에 반바지만 입고 시체처럼 널브러져있는 아정(25, 여). 핏기 없는 얼굴로 숨도 쉬지 않고 누워있다. 이내 아정을 부르며 달려오는 수진(25, 여). 욕조 앞에 쓰러지

듯 앓는다.

수진

구아정! 여기서 뭐해!

수진은 아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몸이 굳어버린 채 연신 소리를 지른다. 아정은 놀라 눈을 뜬다. 숨을 약간 헐떡이며 수진을 바라보는 아정.

아정

왜 그래. 나 괜찮아.

하연이 살아있음을 알고 잠시 멈추는 가은.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이내 더 크게 악을 쓴다.

수진

(몸부림치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건데!

죽은 줄 알았잖아.

아정

(수진의 팔을 잡으려 하며)

그냥 누워있었어. 진정 좀 해봐. 미안해.

진정시키는 아정의 손을 뿌리치고 울며 소리를 지르는 수진. 아정은 이상할 정도로 과민반응 하는 수진을 계속해서 진정시킨다. (적부감 원테이크)

### 3 INT. 수진의 집 - 저녁

화장실에서의 상황과 대비되는 고요한 수진의 집. 망치질 소리만 들린다. 앞서 일어난 일 때문에 둘 사이에 어색함이 감돈다. 소파에 드러눕다시피 앉아 휴대폰을 하는 수진과 바닥에 앉아 새 토슈즈를 망치질하며 길들이는 아정.

수진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오늘 강의 하나 휴강이라 일찍 왔어.

아정

아, 응.

짧은 정적이 흐른다.

수진

(아정의 눈치를 보며)  
토슈즈 길들여? 이번에도 게이 어찌고 거야?

아정

게이놀민든.

수진

아.

아정

그건 높아서 발이 불편하더라.  
이건 그리쉬코.

다시 어색한 침묵. 옆에 놓인 크로키북을 집어들어 주변에 보이는 물건들을 끄적이기 시작하는 수진. 망설이다 말을 시작한다.

수진

오빠가 나 중학교 때 옥조에서 자살하려고 했었어.

흠칫 놀라는 아정. 잠시 망치질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본다. 수진은 연필을 끄적이며 답답하게 말을 이어간다.

수진

내가 발견해서 살았는데, 엄청 원망하더니 결국 집 나가버렸어.  
(사이)  
아까 죽을 거였어?

아정

오빠 일은 몰랐어. 미안해.  
(다시 망치질을 시작하며)  
근데 난 그냥 반신욕 하려고 한 거야.  
좀 더워가지고. 찬물로..

수진

누가 옥조에 물도 안받고 그렇게 시체처럼 누워있어.

아정

물 받으려고 했어.



수진

물부터 받지 누가 옷도 다 입고 욕조에 그따구로 드러  
누워있냐고.

아정

(멋쩍게 웃으며)  
순서가 좀 헛갈렸나.

수진

(크로키북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야. 답답하게 말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아정은 망치질을 멈추고 잠시 망설이더니 망치를 내려놓고 몸에 힘을 실어  
토슈즈 아치 부분을 구부리며 입을 연다.

아정

속이 좀 답답할 때 있잖아.  
그럴 때 이래. 심각한 거 아니고.

수진

너 숨도 안쉬고 있었어. 알아?  
수면제 같은 거 먹은 거야?  
죽으려고 했어?

아정

아니야.

수진

그럼 뭔데.

아정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턱 막힐 때 있잖아.  
그럴 때 나는 숨을 참아버려.

수진

그게 무슨 소리야.

아정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숨이 턱 막혀. 숨을

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 때가 있어. 그럴 땐 괜히  
괴씸해서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그냥 숨을 참아버려.  
'그래, 그냥 죽어보자' 하면 그게 물속이라 해도 숨이  
쉬어지더라.

수진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아정

설마 죽겠어?

수진

어, 그거 사망플래그인데.

어이없는 듯 웃는 하연. 가운데 따라 웃는다.

수진

(심각했던 표정이 풀어지며)  
근데 너도 참 사고회로가 독특하다.  
어떻게 숨이 막히는 와중에 숨을 안쉬어버리겠다는 결  
론으로 흘러가니.

아정

그러게.

수진

어디 아가미라도 달린 거 아니야?

수진은 크로키북에 아가미가 달린 하연을 끄적인다.

아정

(능청스럽게)  
찾아봤어. 근데 없던데?

수진

참나.

아정

(수진을 힘껏거리며)  
그게 그 금테 연필이야? 비싼 거?

가은

(연필을 허공에 흔들며)  
응. 미쓰비시. 좀 부자 같니?  
(돼지 모양 연필깎이를 들어 보여주며)  
이건 너가 나한테 버린 거.

아정

저걸 진짜 쓰네.

수진

귀엽잖아.  
(연필깎이를 옆에 내려놓는다)

아정

뭐 그리는데?

수진

너. 아가미 달린 구아바.

아정

예쁘게 그려줘.

수진

예빠야 예쁘게 그리지.  
(아정의 눈치를 잠시 살피고)  
근데 뭐가 그렇게 숨막히게 힘들대?

아정은 토슈즈를 이리저리 돌려 확인하고 신기 시작한다.

아정

발레리나는 수명이 짧아. 무대에서 반짝하고, 진짜 잠  
깐 빛나고 끝나.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는데 부상 한번이면 당장이라  
도 끝날 수 있고, 이제 내 나이면 언제 끝나도 안 이  
상해.

수진

아직 이십대 중반인데?

아정

발레리나는 수명이 진짜로 짧아.

어두운 표정으로 토슈즈 리본을 묶는 아정.

수진

야. 구아바. 동아에서 상 받을 정도면 엄청 잘한다는 거 아니야?  
남자가 받으면 군면제라며. 그럼 적어도 한국에선 짱이라는 거지.

계속 어두운 아정의 표정.

수진

구아바.

아정이 보지 않자 다시 한번 아정을 부른다.

수진

야 구아정.  
(장난스러운 말투로 부러움을 드러내며)  
너가 지금 너네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창창하다고. 왜 벌써 끝날 걸 걱정해.  
(목소리를 낮추며)  
너 이려고 있는 거 알면 전 세계의 모든 재능 없는 무용수들이 너를 암살하려고 오대양 육대주를 건너 우리 집에 자객을 보낼 거야. 그러다 착각하고 내가 암살당하면 책임질거니? 불쌍하게 생을 마감한 김수진의 삶은 어떻게 보상해줄 거니?

아정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헛소리 좀 하지마.

토슈즈를 마저 신고 일어나는 아정. 의자를 잡고 발끝으로 서보고 이리저리 발을 구부린다.

수진

구아바야. 오늘은 알바 몇 시야?

아정

9시. 원래 7시인데 무슨 동호회에서 강습 하나 잡았다고 밀렸어.

하연은 발이 불편한 듯 토슈즈를 내려다보며 얼굴을 찡그린다.

수진

마룻바닥 안미끄러워?

아정

좀 밀리네.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신어보고 살 걸.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9시에 출근.

수진

(웃으며)

오늘은 같이 저녁 먹을 수 있겠다. 치킨 시킬 테니까  
먹고 가.

아정

헐 대박. 정수진 짱이야.

수진

(책상 위 치킨집 전단지를 집어들며)  
바로 시킬게. 후라이드?

아정

응.

수진

(전단지를 보며 전화번호 누른다)  
우리 쿠폰 몇 개 모았지?

아정

(계속 발레 동작을 해보며)  
몰라. 한 7개?

수진 (S.O.)

일단 전화할게.

아정

응.

수진 (S.O.)

(번호를 마저 누르고 전화기를 귀에 대며)  
 여보세요. 여기 후라이드 하나 주시고요. 네. 치킨무도 하나 추가요. 쿠폰은 몇 개부터 돼요? 5개는 소스요?  
 아, 그럼 다음에 할게요. 여기 현대홈타운 3차 102동..

순간 미끄러지며 큰소리와 함께 넘어지는 아정. 바닥에는 망치와 가위, 자른 리본끈이 널브러져 있다.

**수진 (S.O.)**

야 구아바! 괜찮아?

표정이 굳어지며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참는 아정. 토슈즈를 응시한다. 아정의 목에 아가미 같은 형체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다. (목에서 미세하게 뛰는 맥박 ECU) 주변 소음들이 줄어들고 물속에서 울리는 듯한 숨소리가 들린다. 계속 숨을 멈춘 채 토슈즈를 가만히 응시하는 아정.

**4 EXT. 스포츠센터 앞 - 정오 (Series of Scenes)**

- ▶스포츠센터 입구 앞. 주머니와 지갑을 꺼내 뒤적이는 아정.
- ▶스포츠센터 주변을 서성이는 아정.
-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건다.

**아정**

죄송해요. 그러게요. 자꾸 까먹네요.  
 아니요. 원래는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 통째로 놓고 와서...  
 아, 네. 괜찮아요.  
 볼 일 다 보시고 천천히 오세요.

- ▶벤치에 앉아 거북알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정. 아이스크림을 몸에 대거나 손부채질을 한다.

**5 INT. 수영장 - 오후**

커다란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아정이 혼자 누워 머리카락만 물에 넘실거린다. 아정의 밝은 색 반팔티에 갈색 얼룩이 지저분하게 묻어있다. 옆으로 빙글 돌아 엎드려 수영장 물에 얼굴을 박는 아정. 그때 아정 옆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아이. 아정은 놀라 일어난다.

**아정**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아랑곳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아이. 멈춰서서 바닥에서 수경 하나를 집어든다.

아이

(뒤돌아 수경을 들어 보여주며)  
이거 가지러 왔어요. 아까 두고 가서.

아정

(널브러진 물건들을 주우며)  
아, 아까 낮에 한 수영 대회 나간 애구나?

아이

네. 경기 봤어요?

아정

아니. 난 방금 출근해서.

아이

(아정의 손에 들린 수영모와 수경을 보며)  
그거 연호랑 지연이 건데.

아정

이거?

아이

(끄덕이며)  
네. 제가 갖다 줘도 돼요? 연호는 제 짝꿍이고 지연이는 방과후 같이 들어서 내일 학교에서 봐가지고요.

아정

그래 그럼.  
(수영모와 수경을 넘겨준다)

아이

(양손 가득 받다 말고 하연을 향해 활짝 웃으며)  
저 아까 대회에서 2등 했어요.

아정

(미소 지으며)  
그래? 축하해.

아이가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내며 수영장 문을 열고 나감과 동시에 수진이 들어온다.

수진

이 시간에 웬 애야?

이장

(킵판을 정리하며)

낮에 수영 대회 나간 애인데 뭐 놓고 갔대.

대회 2등 했다더라.

수진

에고. 어린 나이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겠네.

수영장 물에 발을 담그고 앉는 수진.

수진

웃은 왜 그래?

아정

(한숨을 쉬며)

오늘 카드키 두고 왔거든. 근데 경비 아저씨는 하필 잠깐 은행 가셨다 하고, 밖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거북알 하나 샀는데,

수진

(아정의 말을 끊으며)

그거 다 거북알이야?

아정

응. 날이 더우니까 더 빨리 녹더라. 입 잠깐 뚝딱하고 줄 줄 흘렸어.

킵판을 다 정리한 아정이 수진 옆으로 가 발을 담그고 앉는다.

수진

나이가 몇 갠데 그걸 그렇게 흘리고 앉았어.

거북알 한두 번 먹어?

아정



(어두운 표정으로)  
그러게.

옷에 묻은 거북알을 매만지는 아정.

6 INT. 락커룸 - 오후

의자에 앉아 아정을 도와주는 등 마는 등 하는 수진과 캐비닛을 하나씩 열고 구석구석 닦는 아정.

수진

근데 요 며칠 무슨 일 있었어?

아정

왜?

수진

우리집 안오길래.

아정

(무언가 생각난 듯)

아.

저번 주에 승주네 카페 갔을 때 주문 받던 키 큰 알바  
기억 나?

수진

그 뽕테?

아정

응. 승주 블로그 눈팅하다가 알아냈는지 내 블로그에  
쪽지 왔었어.

수진

오. 언제?

아정

이삼일 전에.

그래서 쪽지 좀 주고받다가 어제 저녁에 만났어.

수진

오.

아정

같이 밥 먹고 카페 갔다가 좀 선선해져서 밖에서도 좀 걷고, 그러다 어찌저찌해서 그 사람 집에 갔다?

수진

앵. 제대로 처음 만난 거 아니야?

아정

들어봐.

그래서 그 사람 집 가서 집 구경 좀 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소주 두 병을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같이 좀 훌쩍댔지. 그러다 잤어.

수진

원나잇?

아정

아니 잤다고.

수진

그니까 섹스했다고?

아정

아니 미친년아. 잠을 잤다고.

수진

미친년. 거기서 왜 잠을 자.

아정

(손걸레를 내려놓고 수진의 옆에 앉으며)

취해서 그랬지.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 침대에서 잤어. 여자친구 있으면 어떡해.

수진

어우. 꿀값. 잠만 잤다며.

그리고 여자친구 없으니까 너한테 들이댔겠지.

여친도 있는데 그런거면 개 잘못이지 너 잘못이니?

아정

그래도 내 발로 내가 들어갔는데.  
더러운 사람 된 기분이야.

수진

그러니까. 제정신이면 여친도 있는데 너 발로 지 집에  
들어가게 뒀겠냐고. 쓰레기여도 개가 쓰레기지.  
(사이)  
그래서 또 그러고 있었어?

아정

아니 뭐. 그 뽀테 때문만은 아니고.  
(옷에 묻은 얼룩을 만지며)  
카드키도 그렇고, 거북알도 그렇고.

수진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러다 진짜 죽어.

아정은 어두운 표정으로 계속해서 거북알이 묻은 옷을 거칠게 매만진다.

수진

부러운 년. 곧 남친 생기겠네. 난 남자 한번 만나보겠  
다고 씨씨 많다는 봉사 동아리까지 들어갔는데.  
(애써 웃으며)  
나는 오늘 공모전 발표 났어. 또 떨어졌고. 너랑 술이  
나 먹자고 온 건데 너는 이런 걸로 이렇게까지 할 일  
이니.

아정

아, 미안해.

수진

(애써 괜찮은 척 일어나 옆에 놓인 손걸레를 집어들며)  
이쪽 닦으면 돼? 얼른 하고 가자.

미안한 얼굴로 수진을 쳐다보다 따라 일어나는 아정.

## 7 INT. 화장실 - 낮 (Series of Scenes)

산소호흡기를 한 채 숨을 쉬지 않고 앉아있는 아정.

Cut to:

아정의 습관(hand-held)과 습관이 발현된 요인(static), 발레 연습하는 아정의 모습(hand-held) 세 개의 씬이 교차되며 나열.

- ▶ 토슈즈를 신고 선 아정의 발끝.
- ▶ 끊어진 줄 이어폰.
- ▶ 아정의 손끝과 표정.
- ▶ 공중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가득 받는 아정.
- ▶ 널브러진 다 쓴 휴매트 여러 개.
- ▶ 세면대 물을 끄는 아정의 손.
- ▶ 고조되는 아정의 몸짓.
- ▶ 망가진 선풍기.
- ▶ 세면대를 잡은 채 떨리는 손. 물방울이 맺혀있다.
- ▶ 발롱(Ballon) 후 착지하는 아정.
- ▶ 착지와 동시에 공중화장실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있던 아정이 고개를 든다.
- ▶ 산소호흡기를 떼고, 참았던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아정.
- ▶ 얼굴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채 거칠게 숨을 쉬는 아정의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있는 수진. 둘의 눈이 거울을 통해 마주친다. 안쓰러운 듯 아정을 바라보는 수진.

## 8 INT. 수진의 집 거실 - 새벽

몇 조각 남지 않은 다 굳은 피자 와 캔맥주, 각종 과자들을 펼쳐 놓고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둘. TV에는 개그콘서트 재방송이 나오고 있다. 아정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중간중간 추임새만 넣으며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 한 수진.

수진

해 뜬다.

아정 (S.O)

작가나 영화감독 같은 건 나이 들수록 오히려 연륜이 쌓이잖아.

옛날엔 그 잠깐 반짝 하는 게 멋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쫄려. 사실 부상만 아니면 그래도 몇 년은 더 할 수 있는데, 주변에 선배들 돈 번다고 티칭 쪽으로 빠지고, 부상 때문에 하나 둘 때려치는 거 보면 불안해.

수진

(끄덕이며 건성으로)

음 그렇겠다.

**아정 (S.O)**

잘 살다가도 그렇게 현실이 혹 다가오면 숨막히는 거지. 현실에 압도 당해 자꾸.

그래서 숨을 참아버리는 거야. 삶에 미련 가지면 계속 아쉬워지니까.

**수진**

넌 진짜 전생에 물고기였나 보다.

(사이)

구아바야. 너 광어에 간장 찍어 초장 찍어?

**아정**

(어이없어 하며)

그게 지금 흐름상 맞는 말이야?

나는 간장.

**수진**

다들 간장 찍어 먹더라. 근데 난 초장 찍어.

생선은 구워먹을 때나 간장 찍지.

회는 초장이지.

**아정**

광어는 어떻게 해도 간장이야.

**수진**

너 광어 구워서 먹어봤어?

**아정**

광어 구이? 구이로도 먹어 그걸?

**수진**

응.

**아정**

넌 먹어봤어?

**수진**

응. 고딩 때.

아정

어찌다가?

수진

성강대 실기대회 은상 받고 축하한다고 가족들이랑 레스토랑 가서 처음 먹어봤어.  
그 날 너는 서울국제에서 그랑프리 받았었는데.

아정

아, 너가 찍어서 보내줬었지 않아?  
광어 스테이크였나?

수진

응. 맞아.  
(일어나려 하며)  
맥주 더 있어?

아정

다 마셨어. 내거 마셔.  
(앞에 놓인 맥주를 건네주며)  
그때 너가 은상으로 만족하는 거 같아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높은 상 받으면 질투날 수 있잖아.  
(웃으며)  
근데 넌 맛있는 거 먹는다고 마냥 신나 있더라.

아정의 맥주를 건네 받아 마시던 수진의 표정이 굳는다. 아정은 수진의 반응을 보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간다.

아정

우리 같은 날 수상자 발표 나고 괜히 축하한다는 연락도 못하고 있었거든. 근데 너가 사진 찍어서 먼저 문자해줬잖아. 그거 받아마자 엄청 안심 됐어.

가은

(아정이 준 맥주캔을 응시한 채)  
니 눈에 나는 은상에 헤벌레 하는 병신으로 보였겠다.

아정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라며)

어?

수진

은상으로 만족한다고?

나는 그냥 은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

아정

(당황하며)

그런 말이 아니잖아.

수진

질투라는 건 원래 인간이라면 다 하는 거야.

찌질하고 기분 더러운 감정이라 다들 아닌 척해도 누구나 질투라는 걸 한다고.

넌 절대 몰라. 은상을 받든, 대상을 받든 우린 너 같은 애들이 무대에서 돋보이게 하는 거 이상은 못 해. 그게 질투나는 거야. 내가 은상이고 너가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으려면 너 같은 애들이 더, 더, 더 빛나게 죽도록 노력하는 게 끝이야.

잠깐 반짝 하는 삶이 의미없는 거 같아? 그거 우리한테 배불러 터진 소리야. 너네 뒤에서 평생 빛나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잘하는 순서대로 줄세우기가 의미있을 거 같아?

내가 대상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아정

근데 그게 내 잘못이야?

수진은 아정의 반응에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다시 말을 시작한다.

수진

우리 오빠나 너나 죽을 강도 없으면서.

죽을 거면 차에 치이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려. 갈 거면 그냥 한 번에 가라고. 물에 얼굴 처박고 숨이 쉬어지네 지랄 같은 소리 그만하고.

너는 그냥 세상 우울 혼자 다 가진 천재인 척하는 정신병자야.

수진의 말이 끝나고, 아정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수진을 응시한다. 아정은

이내 걸옷을 챙겨 들고 집 밖으로 나가버린다.

수진

(혼자 중얼거리며)

그래 내 집에서 나가.

아정이 나간 뒤, 혼자 씩씩거리는 수진. 조용한 거실에 혼자 남아 괜히 과거를 집어 먹는다. 수진은 자신이 한 말을 곱씹는다.

수진

아 씨...

황급히 옷을 챙겨 나가는 수진.

#### 9-A INT. 수영장 - 이른 아침

수영장에는 또다시 얼굴을 박고 엎드린 아정이 있다. 천천히 다가가 옆에 서는 수진. 수진은 직감적으로 아정이 죽었음을 안다. 아정을 내려다보며 휴대폰을 꺼내는 수진.

수진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여기 친구가 쓰러져있어요.

아니요. 죽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괜찮아요.

동천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이요.

수진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아정의 옆에 발을 담그고 앉는다. 눈물을 참기 위해 눈썹을 만지작거리거나 머리 쓸어넘기는 행동을 반복하다 결국 눈물을 흘리는 수진. 울음소리인지도 잘 모를 끄끙 먹어들어가는 소리가 수영장에 울린다. 어디선가 열게 들리는 아정의 숨소리와 수진의 울음소리가 점차 물에 잠긴 듯 멍멍하게 들린다.

#### 2-B EXT. 산꼭대기 - 노을지는 저녁(Back to Scene)

노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읊조리는 수진.

수진

이 동네에서 친구가 죽었거든.



(사이)  
내가 죽인 거지.  
(사이)  
이 동네 오기 싫었는데.  
이렇게 되잖아.  
또 얽치없이 용서받고 싶고.  
그래도 이제는 나를 이해해줄까?  
나를 용서해줄까?

**9-B INT. 수영장 - 이른 아침 (Flash-Back)**

한참을 움직이지 않다가 고개를 드는 아정. 수진 옆에 발을 담그고 앉는다. 수진은 그런 아정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린다. 수영장에는 작게 출렁이는 물소리와 함께 수진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친다.

<끝>